



◆ 미 수은, 의료시설 및 장비 수출지원 강화

미 수은은 미국 기업들의 개도국앞 의료 장비 및 서비스 수출 지원 강화를 위한 조치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미 수은은 미국 기업의 의료기기 및 설비 수출시 계약 금액의 15% 범위내에서 수입자의 구입자금과 현지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통상 의료기기와 서비스를 수입하는 해외기업들은 중소기업이 대부분이며, 자금력이 취약하고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현지비용 조달과 관세 문제 등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의료기기 수출거래에 참여하는 미국 기업의 대부분도 중소기업이므로 중소기업 우선 지원이라는 미 수은의 업무방침

에도 부응한다. 미 수은은 동 의료기기 및 설비 수출지원 사업을 2년 동안 시범사업(pilot program)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상환기간은 OECD 가이드라인에서 허용하는 최장 7년의 기간을 보장하게 되며, 의료시설 신축이나 확장시 건설기간 동안의 이자비용을 원금에 산입하여 지원한다. 또한, 개별거래 심사시 더욱 유연한 지원 기준과 태도를 견지키로 하였다.

한편, 미 수은은 2001회계연도 중 의료장비 수출에 1억 6,800만 달러를 지원하였으며 1999년 이후 총 3억 4,190만 달러를 동 분야에 지원하였다.

【黃 秀 泳】